

■ 전진농업 현장 8 ■ 신안농장 대표 조태명 ■

# 친환경 사과 관광농원 가꾼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과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사과를 따고 이를 박스로 담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산1번지 일대 1만2천여평에 사과농장을 가꾸고 연간 8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신안농장 대표이며 포천사과연구회 회장인 조태명(53)씨를 만났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여년전에 이곳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현재 18년생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사과를 통해 미래를 가꾸어 가고 있는 조태명 대표의 얼굴은 가을하늘만큼이나 여유가 있다.

사과나무는 관리를 잘하면 25년에서 50년까지 사과를 딸 수 있다. 관리는 전지,전정,토지관리를 들 수 있다. 초생재배로 풀을 키워 깎아 깔고 나무에서 나오는 전기목을 부셔서 넣어주면 비료를 넣지 않아도 나무상태가 좋아진다.

매년 50주씩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어 죽어가는 나무를 대체한다. 1만2천평에서 연간 6만kg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사과농사가 잘 됐을 때다. 그러나 연간 3만7천여kg 생산에

그칠 수도 있다. 연간 8천여만원의 매출에서 4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나머지 순수익이 4천여만원에 달한다.

5년전부터 조 대표는 신안농장을 관광농원 개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도 두 번이나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도시민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사과따기 체험과 좋은 사과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산1번지 1만2천여평 부지에 조성된 신안농장 조태명 대표는 매년 19kg 4천여박스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사진은 탐스럽게 열린 사과나무)

를 직접 따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1kg 당 3천원에 가져간다.

신안농장에서 생산된 사과는 서울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다. 인근지역에서 모두 판매되기 때문이다. 농장을 직접 찾아오는 고객 뿐만 아니라 지역에 마트나 농협이 판매장에 판매한다.

조 대표가 농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연친화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자연그대로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싶다. 몸에 좋은 과일과 맛있는 과일을 자연스럽게 생산하고 싶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운영하는 신안농장에서는 사과 직접 골라 따기를 오는 10월말까지 계속한다. 사과 따기 체험을 원하는 도시민들은 10월10일부터 30일까지 신안농장을 방문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누구나 사과따기 체험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사과종류는 부사

파가 제 맛이 난다. 물론 건강에도 좋다. 조 대표는 농장운영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를 추진했다. 트랙터를 이용해 풀작기 작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도권 도시민의 휴식처로 농장의 공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과거에 농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계화농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다. 기계화농업으로 남는 시간은 여가를 즐기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 대표는 골프를 즐긴다. 현재 100타를 오가며 골프를 즐기는데 주로 동베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다. 농부로서 골프를 할 줄 아는 모델은 물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다.

조 대표는 사과연구회 회장으로서 최근 포천에 신규 사과재배 단지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들 신규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유럽이나 일본 등 해외연수를 통해 사과재배의 성공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를 재배에 활용해야 한다.

“육심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평소 지론을 바탕으로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사는 방식을 조 대표는 즐긴다고 한다. 골프같은 인생을 즐기자는 조 대표의 말과 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신안농장에서 도시민들이 사과는 물론 삶의 여유까지 얻어 가는 날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주)경은

## 양질의 피혁원단 생산 전문업체



대표이사 김종배

최고급 원피(우피)를 수입해 최첨단 시설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피혁을 생산하고 있는 (주)경은(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267-4 대표이사: 김종배)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피혁제품 생산에 주력하며 글로벌 기업을 추구하고 있다. 피혁제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맥을 이어 왔으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품이다. 피혁제품은 보기에와 달리 생산공정이 무척 까다롭고 노

다년간의 노하우와 (주)경은만의 독특한 기술력으로 생산된 제품은 바이어와 타 업체로부터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경은의 제품이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 전 임직원들의 연구와 노력이 크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이며 업계 30년정도 경력을 가진 직원들의 기술력 지도로 각 분야별 부문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경은은 최근 거대해지는 중국시장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과 연구를 병행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완벽한 제품생산만을 고집하며 전 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때로는 바이어와 약속한 납기 일을 맞추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등 자사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경은에서 주로 취급하는 피혁은 대부분 짐바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핸드백지와 신발용 가죽을 생산하고 있다. 짐바지는 고급피혁을 사용하는 만큼 가격도 비싸지만 많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원가절감과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화공약품은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제품을 사용해 제품이 깔끔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 국제적인 감각을 토대로 완제품 생산 열린경영을 통해 내실있는 업체 지향

하우와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같은 원피라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제품의 차이가 많다고 한다.

(주)경은은 수입된 원피를 타 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1차 가공을 거쳐온 제품을 취급하며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미국, 유럽, 홍콩 등으로 재수출하고 있는 효자 기업이다.

김 대표는 화공품을 전공하고 피혁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입사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한길만을 고집해온 피혁업계 베테랑으로 주위에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주)경은의 제품공정과정을 알아보면, 1차 외주업체에서 과정을 거쳐온 제품을 건조 - 밀링(원통 안에서 가죽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 과정) - 토글(색, 열을 가해서 가죽을 늘려주는 작업) - 버핑(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스프레이(주문제품에 대한 컬러를 맞추는 작업) - 패드(손을 이용한 컬러작업) - 오토 - 핸드스프레이 - 오토스프레이 - 아이롱 - 2차 밀링 - 2차 토글 - 개평 - 완벽한 검사 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무결점의 제품을 원하는 업체로 출고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매년 해외에서 열리고 있는 피혁 제품 전시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참가하고 있다”며 “피혁업체 CEO간 교류 확대 및 피혁산업 발전 방향 모색과 세계적인 감각을 키워가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김 대표의 마인드가 함께 하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주)경은 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송봉기 과장은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며 “김 대표는 직원들의 욕구불만 등을 거의 수렴해 주고 있으며 일에 대한 열정과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 다르며 직원들과 격 없이 지내고 있는 우리의 골목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열린경영을 통해 내실 있는 업체를 지향하는 (주)경은은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피혁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제품생산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국제적인 감각을 토대로 완제품 생산에도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문의) 031) 541-8955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열린경영을 통해 내실있는 업체 지향하는 (주) 경은 사업소 모습.

## 포천천 건천화 예방 및 송우택지개발지구 추진 순항

### 총사업비 288억 투입된 소홀하수처리장 준공

포천시가 1998년 포천하수처리장과 2000년 영종하수처리장, 2004년 영북하수처리장을 각각 설립한데 이어 20일 소홀하수처리장을 준공, 방류하천인 포천천과 영평천 및 한탄강 수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소홀읍 이가팔리 262-2번지 일원 9천446평의 부지에 들어선 소홀하수처리장은 하루 1만15천m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수처리구역은 소홀읍 송우리와 무봉리, 이동교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그리고 동교동 등이며, 이곳 46,000여명의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포천천으로 방류하게 된다.

소홀하수처리장은 지난 2002년 5월 공사에 들어가 이년에 완공을 보게 됐으며 국비(양여금) 91억여원, 도비와 시비, 각 41억여원, 원인자부담금 115억여원 등 총 28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소홀하수처리장 준공을 통

해 포천천의 건천화가 방지되고 송우택지개발지구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포천시는 또 이미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직동하수처리장을 급진 안에 완공하고 일·이동, 내촌, 관인, 탄동하수처리장 등 나머지 네 곳도 800억원을 투자해 2008년 안에 모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이같이 원활히 진행되며 포천천의 물이 맑아지자, 주민들은 물고기가 늘어나고 철새들이 많아 모여드는 등 포천의 물이 살아나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더욱 맑아진 포천의 하천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은 수질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더욱 ‘환경보존의 토대’ 위에서 지역개발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전세계 바이어, 포천에 온다

###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 최종보고회

포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관료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의 최종준비보고회를 지난 23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마련했다.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신북면에 소재한 (주)아도니스 호텔에서 전 세계 20여 개 나라 30여명의 바이어들과 포천 지역 140여 기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상담회장에는 생산제품 홍보를 위해 기업별 전시공간이 별도로 마련됐다.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서 박은국 포천시장은 실질 구매력이 큰 바이어와 판매 기업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소기의 성과를 내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이번 상담회가 기업과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철저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 홈페이지(www.bizpocheon.or.kr).

히 분석한 뒤 포천시 공동브랜드 발굴과 가칭 POTRA 즉 포천시 무역역사 설립을 검토하고자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포천시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인지도제고와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유망상품 영문종합카탈로그를 제작, 전세계 해외공관 등에 배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됨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동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⑤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이혼후자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계산한다.

-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

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공사기간,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하게 되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재개발 등으로 완공된 주택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집진기 청소작업 중 실족하여 스크류에 협착사고

#### ▶재해발생개요

(주)화화 작업장에서 집진기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청소용역 업체소속 근로자 4명 중 1명이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청소작업 중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도외시키기 위해 호퍼 내부에 설치된 보강용 지지대를 밟고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가동 중인 분진배출용 스크류 콘베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상황도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집진기 개방문 연동장치 미설치  
• 청소, 정비작업을 위해 집진기 개방문 개방시 분진배출용 스크류가 정지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중 청소작업 금지

- 기계의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 정지시킨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중” 또는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나. 추락방지용 작업발판 설치
- 호퍼 지지대 상부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다. 집진기 개방문 연동장치 설치
- 청소, 정비작업을 위해 집진기 개방문을 열었을 경우 분진배출용 스크류가 정지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연(031-826-6091)